

크스님 수행한담

# 진리의 문 열수 없어요

### 팔만대장경 요체는 '心'입니다 마음자리만 옳게 놓으면 만법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보안스님이 유익하게 보관하고 있는 사진으로 36년전 낙동강 방생법회에서 일타스님 도우스님 보경스님과 함께 했다.

매에 빠져 있기를 밥 먹듯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에는 영영이가 지푸르고 상처가 생겨 피고름이 방석에 달라붙는 옷지 못할 일로 스님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나를 선정삼매에 들게 했던 화두는 '차의역반아(着衣覆偈阿) / 시방노타사(屎放屎拖沙) / 시로상행(屍路上行) / 시심마(是甚麽)'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말밖에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간경을 하든, 염불을 하든, 진언을 일심으로 하든, 참선을 하든 자기자신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견성성불하는데는 참선이 가장 수승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禪)이라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심(敬心)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졸리면 자고, 배 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마음에 '나'라는 생각이 없으면 상대

그릇을 씻으셨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선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마음을 내어 생각을 일으킨다면 마치 나무로 달을 치는 것 같이 어렵지만, 일체의 모든 생각을 끊어버린다면 세수할 때 코를 만지는 것 만큼이나 쉽습니다. 그게 선입니다. 마음을 움직여 생각을 내지 마십시오. 마음을 움직여 생각을 내게 되면 크게 틀립니다. 그렇지만 선공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밥을 먹는 것입니까? '밥을 왜 먹는가'라는 목적이 분명하면 삶의 뚜렷한 방향과 해야 할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주된 배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밥을 먹는 것이 가정을 위하고 부모를 위한 것이라면 그는 진정 효자라 할 만하고 가정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밥을 먹는다면 충신이고, 인류를 위해 밥을 먹는다면 그는 보살입니다. 사후세원에 '중생 무번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은 그

돈요. 이름을 대면 다 아실만한 분도 계시구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결결 웃으실 겁니다. 그러나 본인의 도를 알고 '나'라는 생각을 버리면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이다(一切唯心造)'라고 말합니다. 마음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죠. 또 '즉심시불(卽心是佛)'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팔만대장경에 담겨 있는만큼 불교를 알려면 팔만대장경을 다 봐야 할 텐데 누가 그 많은 경전을 다 보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불교는 모르고 마는 겁니다.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의 요체는 마음 '심(心)'자 한 자에 있습니다. 팔만대장경 전체를 돌돌 뭉치면 심(心)자 한 자 위에 서 있어서 이 한 자의 문제만 옳게 해결하면 일체의 불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체 만법을 다 통찰할 수 있습니다. 또 삼세제불(三世諸佛)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초지종(自初至終)이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뜨면 자기의 본성, 즉 자성(自性)을 볼 수 있습니다. 견성(見性)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지런히 화두를 참구하여 잠시 폭 들어서도 크게 살아나고 크게 깨쳐서 마음의 눈을 바로 뜬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쌀라야나경》을 읽은 것은 스리랑카 팔리 불교대학 교수 시절, 불교사회철학과 교재로써 팔리어로 된 경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였다. 이 경전은 팔리장경 중부의 93번째 경전으로 제1결집에서 성립된 초기 경전에 해당한다. 이 경전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생생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 《아쌀라야나경》에서는 당시 사회의 지배계급인 500명 바라문들과 부처님의 계급평등에 대한 대토론이 벌어진다. 이 대토론에서 부처님은 지혜로운 설득과 자비로 승리를 거머쥐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박차를 가하게 된다. 《아쌀라야나경》에 따르면, 지배적인 상층계급인 성직자계급은 배타의 권위를 이용해서 '성직자아말로 최상의 계급이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성직자들이아말로 밝은 계급이고 다른 계급



전재성 한국팔리성전협회장

있는데,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는 그렇지 못한가?를 통해서 모든 계급은 도덕적으로 기회균등하며 인간의 가치는 도덕적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 인간의 의식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우며 그러한 무한 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평등사상을 전개시켜 성직자계급의 우월론을 타파시켰다. 넷째,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값비싼 전단 나무로 불을 밝히는 것

과 천민들이 더러운 돼지똥이통나무로 불을 지피는 것은 그 밝기에 있어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반문하여 인간은 누구든지 깨달음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불성본적인 평등사상을 전개시켜서 바라문만이 밝고 청정하다는 정부정(淨不淨)의 사상을 논박했다. 다섯째, '성직자계급의 아들과 귀족 계급의 딸이 결혼하여 나온 자식이 성

## 인간에 바탕 바라문 계급우월론 타파 평등사상의 본질 연기법 통해 깨우쳐

은 아들다. 성직자들이아말로 청정하고 성직자가 아닌 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성직자들이아말로 하나님의 적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자이고 하나님이 만든 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곱지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500명의 바라문들에게 아주 논리적인 명쾌한 반론을 제시한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이 그러한 계급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율령, 임신, 출산, 수유를 갖는 인간적인 여인에게서 태어난다는 휴머니즘적인 평등사상을 전개하여 절대신의 창조설을 부인한다. 둘째, 계급이라는 것이 신이 만든 것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도변경까지 들어와 있던 회람 사회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 회람사회는 인도사회와는 달리 두계급 밖에 없는데, 귀족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가 귀족이 되기도 한다는 계급변동에 의한 평등사상을 전개시켜 바라문들의 고정관념을 타파시킨다. 셋째, 다음과 같은 반문 즉 '성직자만이 이 나라에서 원한을 품지않고 화내지 않고 자비스런 마음을 지닐 수

## 목적 분명히 하면 삶의 방향 뚜렷해요 효자도 보살도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을 위해 밥을 먹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저 새벽이면 일어나 예불하고 법당 내의 청소, 밥 짓고, 경전 읽는 등의 생활을 반복할 뿐 이런 저런 생각할 겨를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처음 출가하는 사람의 몫이려니 여겼거든요. 이렇게 출가자의 공부자리를 놓고 살았던 나에게 스님의 한 한마디는 철필가 되어 내 컵가를 때렸습시다. 그런 연유로 들게 된 화두를 참구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석달, 일년을 하루같이 살았습시다. 그러나 서두에도 밝혔사피고 '웃 입고 밥 먹고 똥 누고 오줌 싸고 죽은 송장을 끌고 길을 가는 이것이 무엇일고?' 라는 화두의 한문 풀이만을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을 뿐, 깨달음을 묻는다면 '아직

(相對)되는 대상이 없어 보살도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 고프면 밥을 먹고,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 마시는 것만 생각하며, 일을 할 때는 일만하고, 가르칠 때는 가르치기만 하며, 책을 읽을 때는 오직 책 읽는 일에만 신경을 쓰세요. 매 순간을 자신이 하는 일에 온통 정신을 집중하여 일념으로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께 법을 물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그에게 물기를 '밥 먹었는가?' 그가 '먹었습니다' 하니, 선사께서는 '그럼, 밥을 씻으러 가게나'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밥을 씻으러 가라'는 조주선사의 말씀을 듣고 곧장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 스님이 깨달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식사하셨습니까? 그리고 밥

수가 한량 없지만 반드시 제도하여 열반의 종파를 얻게 하려는 서원'라 하듯 일체 중생을 위해 밥을 먹을 때 진정한 불제자가 되고 아이타불을 친견하여 극락세계에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경 봉암사에서 살 때였습니다. 성철스님, 우봉스님은 물론 예암스님, 도견스님, 도우스님 등 많은 수좌들이 같이 있었을 때였는데 나는 선방에서 공부하는 틈틈히 공양주 소임을 자청했습니다. 그 소임이 얼마나 힘들던지 때때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시다. 옹맹정진하고 있는 다른 수좌들을 볼때 그 마음이 더 일어났습시다. 수좌들 공양수발하고 나무 패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고된지 줄행랑을 치는 스님들이 많았거

정리=도필선 기자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탐사**

한국의 불가사의의 만불탐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탐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제 7차  
**총효사 서울수련회 모집안내**

불법의 진리를 깨닫고, 총효사상의 도리를 배울 수 있는 깨달음의 장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눔의 장은 당신의 미래를 바꾸어 드립니다.

1.모집내용

차수	구분	대상	모집인원	회비	날짜(기간)
1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7.12.12~12.15
2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7.12.19~12.22
3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7.12.25~12.28
4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7.12.31~98.1.3
5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8. 1. 9~ 1.12
6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8. 1.15~ 1.18
7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8. 2. 5~ 2. 8
8차	초심반	일반 및 학생	20명	18만원	98. 2.13~ 2.16

2.수련내용  
①목언 ②염불진언 ③강의 ④마음나누기

3.접수요령 : 전화접수(선착순에 한함)

4.교 통 편  
철도 호남선 서대전 다음역 두제역 하차(2분거리)

5.지참물 : 세면도구, 휴리닝 한벌, 회비

6.연락처 : 042)841-4101

**파런중앙수련원**  
**파런중앙경제연구소**  
파런합장

2천만의 깨달음을  
정수명의로 이끄는 신명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43-5599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청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